

뒤집힌 가치관 바로 세워 읽기

윤구병의 「꼭같은 것보다 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민주야.

우리 아버지 참 엉터리다. 이번 겨울방학 내내 무얼하고 계셨는지 아니? 낮잠만 자고 지내시지 않았겠느냐고? 그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너는 짐작은 대학교수께서, 그것도 철학선생께서 날마다 만화가에게 출근하셨다면 믿을 수 있겠니? 나라도 믿을 수 없을 거야. 내가 그 꼴을 직접 목격한 그 대학교수의 따님이 아니었다면 말이야.”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주는 생활 속의 철학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윤구병씨의 「꼭같은 것보다 다 다른 것이 더 좋아」는 이렇게 시작된다. 대학교수인 아버지가 딸과 딸의 친구에게 쓴 편지를 모아 엮은 이 책은 쉽게 씌어졌지만 결코 쉽게 생각해선 안될 삶의 철학을 담고 있다.

다음은 나라가 공장에 다니는 친구 얘기를 쓴 글이다.

“깨딱지만한 방에서 일곱 사람이 자는데, 한꺼번에 누우면 몸을 뒤칠 공간도 없어서 여름에는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고, 겨울에는 스텝도 잘 안 들어와서 새벽에 번대기처럼 푹푹 말고 자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깔고 잔 이부자리 밑이 흥건할 정도로 습기가 차고, 세면대가 둘밖에 없어서 이를 닦으려고 해도 길게 줄을 서야 하지...가끔 가다가 근처 공장에서 농성이나 파업이라도 하게 되면, 불은 유인물을 탄속한다 하면서 짐검사 한다, 몸수색한다 야단이지...”

90년대 대한민국 서울 어느 한귀퉁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좀체 믿어지지 않는다. 배고픈 사람이 있는 세상에선 세끼 밥을 꼬박꼬박 챙겨먹는 일조차 죄악이라는

어느 작가의 말이 생각나 심란해진다. 이런 현실에서 애들은 공부나 하라는 어른들의 훈계가 얼마나 설득력 있을까.

대학교수인 아버지는 공장에 간 딸의 친구에게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잔잔히 얘기해 준다.

“민주야.

난 네가 자랑스럽다. 가끔 조심스럽게 나래에게도 대학에 갈 생각 버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일거리를 찾아서 생산현장에 들어가면 어떻겠느냐고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만, 나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대학에 가지 않으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의 중압감이 그에 머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겠지. 장래를 내다보면 네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나래도 머지않아 깨우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따지고 보면 물방울 다이아나 명크코트보다 공기와 물이 훨씬 더 귀하고 금은보화보다 쌀이 훨씬 더 귀한데도 가치관이 뒤집힌 세상에선 그렇게 여기지지 않는다. 뒤집힌 가치관을 바로 잡기 위해선 기존의 가치관을 부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은 ‘거꾸로 읽는 책’의 시리즈물이다. 재미있게 읽혀서 손에 쥘 이 책은 착잡한 마음으로 마지막 장을 넘겨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은 거꾸로 읽는 책인가 보다.

김미정

서울 도봉구 쌍문동 349-26 202호

지성의 메스로 파헤친 현실과 진실

최일남칼럼집 「질라래비 훨훨」

흔히 같은 것으로 통칭되는 수필과 에세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전자는 대개 일상생활의 자질구래한 에피소드를 통해 살아있음의 의미를 가볍게 환기시키는 것쯤으로 이해된다. 반면, 후자는 삶의 본질적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 문제제기의 의미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평론가 원형갑의 지적대로 에세이는 “지성으로서의 시력을 떠날 수 없고, 따라서 시대사회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일남의 칼럼집 「질라래비 훨훨」은 그런 점에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 이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 2부는 한겨레신문에 실린 것들이고, 3부는 생활주변의 斷想, 4부는 한국언론에 대한 일화와 일종의 자기반성, 5부는 「신동아」 등에 실렸던 각계인사들과의 인터뷰 기록이다. 아다시피 저자는 소설가이자 언론인이기도 한데, 이 책은 주로 후자쪽에서 세상을 내다본 글들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한편쯤 이미 대해본 것들이라 다시 읽는 즐거움을 갖게 해준다.

여기서 다시 읽는 즐거움이란 그가 신문사의 논설고문으로서 써낸 시사적인 글들의 내용이 단순히 시의성에 그치지 않고 오늘까지도 매우 닳은꼴로 침예하게 펼쳐지고 있기에 한 말이다. 가령 「승만민국」에서 「두환민국」까지를 보자. 제목만으로도 어떤 내용일지 대강 짐작되겠지만 해방 이후의 정치·사회적 궤적을 파헤치는 그의 시선은 날카롭다.

제5공화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오래된 지금까지도 그 악연이 끈적끈적 붙어다니는 것이 「현실적 진실」 아닌가? 악담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현실적 진실은 당분간 이 땅에

서 계속되리라는 전망도 가능케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판국이기에 그의 에세이들은 통시대적 영원성-문학적 감동성을 획득한다. 「원천봉쇄와 ‘일부’라는 착각」, 「탄압은 길고 자유는 짧았다」, 「‘간헐 문학’과 고은시인 생각」, 「통일논의에 수반돼야 할 일」 등은 얼른 뽑아본 것들이거니와, 그런 점에서 주목에 값한다.

한정된 지면이 유감이지만 한 가지는 더 얘기해야 할 것 같다. 저자의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정신이 “전에는 대통령에 대해 적어도 글로는 찍소리도 못하던 주제에 상황이 좀 나아졌다싶으니까 이렇게라도 나오는 기회주의를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다행하게도 생각” 한다는 그의 겸허한 자세로부터 비롯된 점이다. 동시대의 지식인이자 공우체험이 되겠지만 꼭 찍어누르니 찍 소리 못하다가 시절이 좋아지니 터진 입이라고 ‘민주’를 외쳐대는 무리들에게, 이런 그의 현실인식과 비판정신은 사뭇 준열한 깨우침을 문학적 감동성과는 별도로 안겨줄 것이다.

장세진

전북 남원군 동충동 4-2·교사

한국의 출판계가 인정하는 편집학교

마 감 5월 31일



편집을 소설보다 재미있게 가르치는 덕택에,
호기심으로 입학해서 전문인이 되어 나가는 곳.
취미가 직업이 되는 편집자의 ‘끼’를 소중히 생각하는 곳.
감성을 편집에 싣고,
문화의 힘을 믿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편집을 아는 사람이 교재에도 능숙하듯
수료생들의 인간관계도 베스트셀러!
그래서 취업률도 자타가 인정하는 ‘95%’입니다.
— 본 센터 수료생을 채용해 주신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판·잡지·사보·신문사 취업대비

수료생들의 취업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료시기를 놓치시면 인력채용이 원활치 못하오니
지금 곧 문의하십시오. (본 센터 D·M발송물 참조)

엘리트편집인 전문양성 교육기관
한국의 편집디자인센터

대) 812-1715~6 Fax 814-3387
노량진전철역 앞

독일 교과서에 실린 자전적 소설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

한국인 독일작가 이미륵 박사의 「압록강은 흐른다」는 독일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과서에 실려 읽고 있는 우수한 내용과 독특한 문체의 작품이다.

국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규화 박사가 이미륵 탄생 9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주요 작품인 「압록강은 흐른다」 「무던이」 「그래도 압록강은 흐른다」를 한데 묶어 「압록강은 흐른다」로 거듭나게 한 것이다.

이미륵은 구한말에 황해도 천석꾼 집안에서 태어나 한학을 거쳐 신학문을 배웠다. 경성의 학 전문학교 재학시절에 3·1운동에 가담한 후, 일본경찰의 눈을 피해서 압록강을 건너게 되고 중국에 체류중 중국여권을 구해 독일유학 길에 오르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동물학을 전공하여 동물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였지만, 늘 안타까운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갈증으로 창작활동에 열중하여 「압록강은 흐른다」와 같은 아름다운 작품을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

작품내용은 작가의 유년시절의 집안배경을 위주로 나라의 운명과 함께 점차 변해 가는 시대상황과 주위 변화를 차분하고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독일인, 그리고 서구인들에게 한국의 미풍양속, 가치관 등을 알리기 위한 것이기에 문장들이 섬세하고 내용의 이해를 문체의 간결함으로 돕고 있음이 독특하다. 독일 교과서에 이 글들이 실리게 된 주요 원인으로, 그들이 막연히 궁금해 했던 동양의 사상, 양식 등이 이미륵의 문학 속에선 과장없이 소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작품은 이미륵이 독일유학 후, 위암에 시달리는 투병생활까지를 담고 있는데, 결국

이미륵은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독일땅에 묻히게 되었고 독일작가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이미륵은 「압록강은 흐른다」로 한국의 정서와 사상을 독일어로 독일 내에 올바르게 알려 줄 수 있었던 최초의 한국인 독일작가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읽는 동안은 우리의 정서를 새삼 확인해 본다고 하기보다는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이 책은 작가의 고운 문체·묘사로 인해 소설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나는 수필처럼 칭아하고 소설처럼 재미있는 '아름다운 글모음'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 책을 통해 구한말의 농촌풍속과 이미륵 박사의 생애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런 주옥 같은 글들을 청소년들의 교육자료로 자리하게 하여 청소년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김규리

전남 보성군 보성읍 인사동 788번지

미국속의 한국인, 그 삶의 풍경

장소현 콩트집 「콩트 아메리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타국에 대한 동경중에 아직도 가장 지배적인 곳이 미국이 아닐까 싶다.

소도시의 인구를 능가하는 한국인이 모여사는 집단촌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미국은 분명 우리에게 여러가지 생각들을 가지게 한다. 그곳까지 가게 된 이유는 서로 다르겠지만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장소현의 「콩트 아메리카」(책나무)가 보여주는 그들의 풍경이 그러하다. 스스로를 문화 잡화상이라고 말하는 「서울 말뚝이」의 작가 장소현이 현지 생활 십수년 동안 겪고 느꼈던 그곳 사람들의 삶을 담백하고도 진솔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콩트 아메리카」는 어느날 우리 곁을 떠나 먼 미국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그 애환을 우리들을 앞에 두고 한잔의 술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듯이 들려주고 있다.

장소현, 그 특유의 문체는 가벼운 임을거리로 여겼던 콩트에 대한 선입관을 부끄럽게 하며 남의 일처럼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곳 교포들의 아픔을 여러 각도로 공감케 한다.

미국이란 나라와 대한민국이란 나라 사이에 있어온 역사적 후유증에서부터 가치관이 다른 그곳에서 파생되는 한국인의 좌절, 사랑, 이웃의 정, 그리고 그곳에까지 문제시되는 영, 호남이라는 지방색까지 「콩트 아메리카」는 하나 남김없이 그려내고 있다.

양귀자의 소설 「원미동 사람들」이란 작품을 연상케하는 이 콩트집은 달리 제목을 붙인다면 아마도 「나성 달동네사람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었다.

아직도 미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한편의 책이 주는 가치는 자못 클 것이다.

재미와 함께오는 슬픔의 감동. 조금은 아이러니하지만 「콩트 아메리카」는 그러하다. 예를 들면, 흑인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던 어느 조그마한 한인 신문사 직원이 마침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흑인 한 녀석이 들어와서는 희번덕거리는 눈길로 주위를 둘러 보더라는 것이다. 극도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직원에게 그가 한 행동은 "춘자야 연탄 갈아라. 나 똥두천빠보 이히히 안녕 끼시오"였더라는 것이다.

아마도 미군으로 한국에 근무한 적이 있는 그는 한국어가 걸린 간판을 보니 마음이 동해 그러했으리라는 추측을 하면서, "안녕 끼시오"라니 "끼긴 뭘 끼"라는 끝맺음을 보며 씩씩함을 느낀다. 이유는 뚜렷히 잡히지 않아도.

미국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인가? 그곳은 어떤 곳일까? 미국, 미국 하는 이곳의 우리들에게 심각성을 빌리지 않고서도 느낄 수 있게 하는 「콩트 아메리카」의 효과를 기대해 본다.

소성락

서울 종로구 당주동 160번지. 연합철강 총무부

아름다운 책, 읽기 편한 책을 원하십니까.
「여름새벽」으로 연락하십시오.
「여름새벽」은 일급 잉크들로 이루어진
창조적 두뇌집단입니다.



◀ 표지디자인 · 본문디자인 · 출판광고디자인 ▶

121-130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21-2 ☎ 718-6260

단색 스캐너

寫眞製版

— 전문메이커 —

- ◎ 즉석, 포시, 네가가격으로
- ◎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 작업
- ◎ 읍셋인쇄, 본문~표지까지

進光文化社

TEL. 265-4726, 266-2091
주소: 중구 충무로 5가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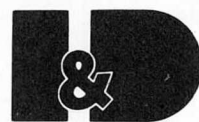


Illustration and Design

- 표지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편집디자인
- 로고/심볼제작
- 광고기획제작

아이앤디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48-20
경구빌딩 601호 Phone/277-8721

「출판저널」 보관용 바인더 실비제작 배포합니다.

「출판저널」의 판형이 특수하여 보관하기가 까다롭다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년치(24호분)를 합철하여 보관할 수 있는 바인더를 만들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 제작실비 2,500원과 등기우송료 1,500원, 합계 4,000원을 우편소액환으로 주문하시면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사로 오셔서 구입하셔도 됩니다.